

 보건복지부		<h1>보 도 설 명 자 료</h1>	
배 포 일	2019. 2. 27. / (총 2 매)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과 장	곽 명 섭	전 화	044-202-2750
담 당 자	송 영 진		044-202-2753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급여율 향상, 등재기간 단축 노력”

(2월 27일자 동아일보, “같은 약이 피부암엔 50만 원, 폐암엔 1,000만 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급여율 향상, 등재기간 단축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사 주요내용

-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비급여 약물 치료비에 대한 급여화 작업이 더딤
 - 약제 급여율이 낮으며, 급여화까지 걸린 평균 시간도 13개월

설명 내용

- 신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약가 제도 개선* 등의 결과로 건강보험 급여율은 평균 8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중증질환 치료제 경제성평가 결과값 수용범위 상향('13년), 위험분담제도('14년) · 허가-평가 연계제도('14년) · 경제성평가 면제제도('15년) 시행 등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율('16년 ~ '17년, 평균)>

전체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일반
86%	90%	85%	84%

- 한편, 제약사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균 약 185일(6개월)이 소요되며,
 -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 및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평균 약 78일(2.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소요기간('14년~'17년, 평균)>

구분	허가 → 신청	심평원 평가	공단협상 및 건정심
전체	178	185	78
항암제	228	252	101
희귀질환치료제	172	164	75
일반	149	164	69

- 참고로 '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청한 항암제는 7개 품목입니다.
 - 이 중 급여적정성 평가가 끝난 품목(2개)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가 되었으며, 1개 품목은 약가 협상 중입니다.
 - 특히 현재 급여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3개 품목은 최근('18년 12월, '19년 2월) 급여 적용을 신청한 항암제로, 단순히 건강보험 급여 여부만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율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7.8월 이후 급여 신청 항암제 진행 현황>

총계	급여 적용	급여적정성 평가 중*	약가 협상 중	자진취하
7	2	3	1	1

* '18.12.6일·21일, '19.2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신청

※ 국민청원 게시판에 언급된 약제는 현재 폐암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위해 관련 전문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암질환 심의위원회) 논의 중에 있습니다.